

## 루쉰(魯迅)의 문명비판과 신체담론\*

- '변발' 문제를 중심으로 -

李 寶 暲\*\*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II. 루쉰의 페르소나    |
| II. 돼지꼬리 - 수치스런 신체 | - '가짜양놈'과 'N 선생' |
|                    | IV. 나가며          |

### I. 들어가며

루쉰의 글쓰기 생애의 많은 부분은 '변발 문제'에 대한 해석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언으로 쓰기는 했으나 근대적인 소설 형식을 최초로 실험한 작품으로 알려진 루쉰의 단편소설 <회구(懷舊)>는 태평천국운동을 배경으로 한 변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의 대표적인 단편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 이야기(頭髮的故事)>, <아Q정전(阿Q正傳)>, <풍파(風波)>는 루쉰의 '변발 삼부곡'으로 불려진다. 소설뿐만 아니라 <병든 뒤 잡담을 하고 나서(病後雜談之餘)>, <수염에서 이빨까지(從胡須說到牙齒)>, <'혁명군의 앞잡이'와 '낙오자'('革命軍馬前卒'和'落伍者')>, <류반농 군을 추억하며(憶劉半農君)>, <타이엔 선생으로 인하여 생각나는 두세 가지 일들(因太炎先生而想起的二三事)> 등과 같은 수많은 산문에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32-A00157)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도 변발 문제를 중요한 화제로 삼고 있다. 특히 <타이엔 선생으로 인하여 생각나는 두세 가지 일들>은 루쉰이 죽기 이틀 전에 쓴 산문으로 최초의 단편소설 <회구>와 함께 두고 보면 루쉰의 글쓰기에서 변발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쿵자오치의 단언대로 루쉰의 창작 생애는 “변발 쓰기에서 시작하여 변발 쓰기로 끝났다”<sup>1)</sup>라고 한다고 해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겠다.

루쉰의 글쓰기에 변발 즉, 머리모양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까닭은 분명 중국 문명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孝敬》의 <開宗名義>에는 신체에 대한 중국인의 사고를 여실히 보여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 “신체와 터럭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가 그것이다. 중국인의 신체사에 대한 연구에서 허우제와 장하이룽이 말했듯이 “원시시대의 신앙과 巫術 체계에서 머리카락은 언제나 영혼과 육체의 매개체였다. 유가문화 체계 내에서 머리모양의 차이는 미학적 필요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華夷의 경계이기도 했다.”<sup>2)</sup> 요컨대 중국에서 머리카락과 머리모양은 미학적 차원을 넘어선 중국 ‘문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루쉰은 문명의 상징으로서의 머리카락을 필생의 화두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근대문명의 시작은 바로 이 신체의 일부인 머리모양을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개조 혹은 훼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명말청초에도 신체를 개조한 역사가 있으나 정복민족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청말민초와 구분된다. 개조의 대상은 물론 청초 만주족이 중원에 들어와 강제적으로 요구한 머리 모양인 ‘변발’이다. 주지하다시피 ‘변발(辮子)’ 즉, 땅은 머리는 청대 이전에도 있었으나 앞머리는 면도하고 뒷머리는 길게 땅아 늘어뜨린 모양은 만주족들의 습속

1) 孔昭琪, <魯迅筆下的“辮子”>, 《魯迅研究月刊》(1996.6), 37쪽.

2) 侯杰·姜海龍, <身體史研究芻議>, 《文史哲》(2005.2), 6쪽.

이었던 것이다. 청말민초의 ‘변발 자르기(剪辮)’는 만주족 스타일을 서양인의 스타일인 단발로 바꾸는 것이었다. 따라서 ‘변발 자르기’는 排滿혁명의 선언하고 동시에 서구문명에 대한 수용에의 의지를 맹세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쑨중산(孫中山)은 1895년 광저우(廣州) 봉기 실패 후 망명지 일본에서 변발을 자르고 양복을 입음으로써(剪辮易服) 혁명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국학대사이자 루쉰(魯迅)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장타이엔(章太炎)은 유신변법 실패 후 변발을 자르고 청조와의 결별, 개량파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중국문명 비판과 개조의 의지로 변발을 자르는 데 앞장선 사람들의 상당수는 재일유학생들이었다. 개중에서 가장 주목을 끈 사건은 저우룽(鄒容)이 천두슈(陳獨秀) 등과 함께 청조가 파견한 학감 야오위(姚昱)의 변발을 강제로 잘라버린 일이다. 이 사건은 루쉰의 작품 속에 자주 거론되는 에피소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루쉰 역시 1903년 일본 교분(弘文)학원 유학시절 장난반(江南班)에서 제일 먼저 변발을 잘랐다. 앞으로 살펴볼 것지만 루쉰의 변발 자르기 역시 쑨중산, 장타이엔 등과 마찬가지로 문명개조의 의식으로 치러졌다.

변발과 더불어 만주족의 신체를 대표하는 것은 여성의 ‘전족’이다. 전족 반대운동이 인도주의를 기치로 내건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sup>3)</sup>과 달리, 변발 자르기는 아편전쟁이후 중국인들이 스스로 “중과 서의 풍속과 습관에 대한 대비를 통하여 비로소 200여 년 동안 길러온 변발 풍속이 근대적 사회생활의 필요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sup>4)</sup>한 결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 청말민초의 변발 자르기는 중과 서의 비교를 통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결과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말이다. 근대적 신체 구성을 지탱하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우생학적 입장에서 보

3) 물론 전족반대운동 역시 무술변법 시기로 가면 중국의 근대초기 기획가들의 의해 ‘사회풍속 개량 운동의 일환’으로 실천된다. 김수연, <근대국가와 신체의 수사학>, 《중국현대문학》 30, 180쪽 참고.

4) 閔杰, 《近代中國社會文化變遷錄》 2(浙江人民出版社, 1998), 604-605쪽.

면 루쉰을 비롯한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있어 변발은 근대적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진보되지 않은 신체였던 것이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청말민초 중국인들의 ‘변발 자르기’를 추동했던 내적 동기는 자국 문명에 대한 비판, 反滿이라는 민족주의적 감정, 그리고 타자화된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루쉰의 산문과 소설에서 이런 동기들이 어떻게 착종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루쉰이 구성하고자 했던 근대 중국인의 ‘신체’로 다가가 보기로 한다.

## II. 돼지꼬리 - 수치스런 신체

루쉰은 1936년 쌍십절 25주년 기념하는 신문을 받아보는 “순간 부지중에 깜짝 놀라 내[자신의-인용자]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망하기 이틀 전에 쓴 미완의 글에서 루쉰은 무심결에 머리를 쓰다듬은 자신의 ‘손동작’에 깜짝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손동작’은 기쁠 때나 감동적일 때면 내가 사반세기 동안 해오던 것으로 ‘변발이 드디어 잘려나갔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원래 승리의 표현이었다. 이런 마음은 요즘 청년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도회지에서 변발을 늘어뜨린 사람을 만난다고 가정하자. 서른 살 좌우의 장년과 스무 살 전후의 청년들이 그를 만나면 어쩌면 그저 신기하게 여기거나 혹은 재미있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중요하고 분노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로 말미암아 고생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변발 자르기로 인해 커다란 사건을 경험했던 까닭이다. 내가 중화민국을 사랑하고 입이 당도록 쇠미할까 걱정하는 까닭의 태반은 바로 우리들에게 변발을 자를 자유를 갖도록 했기 때문이다. 만일 당초에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변발을 자르지 않고 기르게 했더라면 나는 아마도 결코 이토록 중화민국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sup>5)</sup>

5) <因太炎先生而想起的二三事>, 《魯迅全集》6(人民文學出版社, 2005), 576-577쪽.

루쉰에게 있어서 변발은 혁명 승리 25주년 즉, 난징(南京) 임시정부 대 총통 쑨중산이 ‘단발령(剪辮令)’<sup>6)</sup>을 내린지 사반세기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노이로제였던 것이다. 사반세기 전에 획득한 단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청년층에게는 변발이 신기하거나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변발을 자를 자유를 얻기 위해 ‘고생’과 ‘커다란 사건’을 겪어야 했던, 다시 말하면 온갖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자신은 변발을 보기만 해도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살아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중화민국을 옹호하는 이유의 태반이 ‘변발을 자를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변발에 대한 루쉰의 반감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루쉰의 ‘손동작’은 변발이 없는 머리 모양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에 대한 안도와 감사의 표시였던 것이다.

루쉰이 변발로 인해 겪었다고 하는 ‘고생’과 ‘커다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이상의 인용문에 이어 말하고 있는 어린 시절 노인에게서 들었다고 하는 ‘이발붓집에 내걸린 머리’에 이야기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발붓집에 꽂아놓은 깃대에 삼백년 전에는 머리를 걸어놓았다고 한다. 만주인들이 산하이관(山海關)을 넘어 들어와서 변발을 기를 것을 명령했다. 이발사들은 연도에서 사람을 잡아끌어 머리를 밀었고 감히 저항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잘라 깃대에 내걸고 다시 다른 사람을 잡아끌었다는 것이다.<sup>7)</sup>

명을 정복한 청의 섭정왕 도르곤(多爾袞)은 1645년 6월 모든 중국인 남

6) 쑨중산은 1912년 <命內務部曉示人民一律剪辮令>을 반포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은 만주 조정은 이미 전복되었고 민국은 성공했다. 무릇 우리 동포라면 오염된 낡은 때를 씻어내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 무릇 아직 변발을 자르지 않은 자는 오늘부터 20일 기한으로 일률적으로 잘라야한다. 따르지 않는 자는 위법으로 논한다.” 羅檢秋, 《近代中國社會文化變遷錄》 3(浙江人民出版社, 1998), 22쪽에서 재인용.

7) <因太炎先生而想起的二三事>, 같은 책, 577쪽.

성들에게 변발할 것을 명령했다. 10일안에 변발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역의 죄로 다스리겠다는 내용이었다.<sup>8)</sup> 변발은 중국의 오래된 대도시 안에서 청조의 영토 지배권을 상징했던 滿城과 함께 “청조 지배가 가진 정복자적 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sup>9)</sup> 사례였다. 만주족들은 복식을 바꾸지 않는 것을 청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하면서 유허를 불사하고 한족의 신체를 개조하고자 했다. 이 결과 민간에서는 “머리카락을 지키고 머리를 잃든가, 머리카락을 잃고 머리를 지키든가 하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sup>10)</sup> 머리카락으로 인한 유허의 역사가 이발붓짐의 깃대에 내걸린 머리에 관한 이야기로 전승되었던 것이다.

루쉰의 글에는 청초 만주족이 한족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 이른바 ‘양저우(揚州)의 10일’ ‘嘉定 시기 도시 학살 사건’이 자주 언급된다. 그런데 <머리카락 이야기>에서 ‘N 선생’이 이러한 학살 사건이 일어난 까닭에 대해 “나라가 망해서가 아니라 변발을 늘어뜨리는 것”<sup>11)</sup>이 싫었던 중국인이 변발령에 저항했기 때문이었다고 냉소적으로 내뱉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작가 루쉰은 한족의 대학살이 만주족의 지배에 대한 저항 때문이 아니라 만주족의 머리모양에 대해 반항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루쉰에게 있어서 이발붓짐의 깃대에 내걸린 머리는 자유를 상실한 식민지인의 식민자에 대한 저항의 결과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저 강제적인 머리모양의 개조에 대한 저항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머리모양으로 인한 수난은 19세기 중반기에 다시 한 번 일어난다. 태평

- 8) “지금 포고 이후 서울은 10일 안에, 즈이(直隸) 각성의 지방은 이 글이 도착하고 역시 10일 안에 모두 삭발할 것을 명령한다. 따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백성이고, 거역하는 자는 반역의 원수이니 필히 중죄를 받는다. …… 본 조정의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가차 없이 사살한다.” 彭濤, <滿清到“五四”一代學人的辮子與政治>, 《湖北社會科學》(2005.12), 189쪽에서 재인용.
- 9) 마크 C.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푸른역사, 2009), 154쪽.
- 10)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김희교 옮김, 《현대중국을 찾아서1》(이산, 2006), 67쪽 참고.
- 11) <頭髮的故事>, 《魯迅全集》 1, 485쪽.

천국운동의 참가자들이 머리카락을 땅지 않고 풀어 늘어뜨린 것은 만주족에 의해 강요된 신체에 대한 거부이다. 루쉰의 단편소설 <회구>는 태평천국군의 변발 반대와 청정부의 변발 강요 사이에서 피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겪어야 했던 민중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다. 따라서 루쉰은 “나에게 처음으로 만주족과 한족의 경계를 깨닫게 해준 것은 책이 아니라 변발이었다. 이 변발은 우리 조상들의 수많은 머리를 자르고서야 비로소 [중국인의 머리모양으로-인용자] 된 것이다”<sup>12)</sup>라고 했던 것이다. 루쉰에게 있어 만, 한이라는 종족의 구분과 ‘피의 역사’는 우선적으로 신체로부터 이해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루쉰의 변발 자르기 행위는 당시 여타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민족에 의해 강요된 신체에 대한 거부로써 민족주의적인 감정과 얽혀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루쉰의 일본 유학시절에 대한 회상은 조금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排滿의 학설과 변발의 죄상과 문자옥의 대략에 대해서 이미 조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실제로 불편함을 느낀 것은 그 변발이었다.<sup>13)</sup>

루쉰이 일본에 유학생으로 생활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예민하게 느꼈던 것이 당시 혁명가들의 反滿 주장이나 청나라의 언론탄압이 아니라 변발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루쉰의 변발에 대한 노이로제가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反滿 정서와는 좀 다른 문제이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적 분노의 표출이라면 당연히 청조의 문자옥과 排滿의 학설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했을 것이다.

루쉰은 같은 글에서 땅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변발이 있음을 말하고, 이어서 변발의 ‘용도(作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장황하게 묘사하

12) <病後雜談之餘>, 《魯迅全集》 6, 193쪽.

13) <因太炎先生而想起的二三事>, 같은 책, 578쪽.

고 있다.

용도에 관해서 말하자면 싸움할 때 잡아당길 수도 있고 간통죄를 저질렀을 때 자를 수도 있다. 연극할 때 쇠깃대에 매달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때릴 수도 있고 마술하며 머리를 흔들 때 용이나 뱀처럼 춤출 수도 있다. 어제 거리에서 경찰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한 손에 한 사람씩 두 사람을 연행하고 있었다. 만약 신해혁명 이전 같으면 변발을 잡아끌면 최소한 10여명은 잡아갈 수 있으므로 치안에 아주 편리하다. 불행한 것은 이른바 ‘쇄국해제’가 되어 士인들이 차츰 서양서적을 읽고 이로 인하여 비교를 알게 되어 설령 서양인들로부터 ‘돼지꼬리’로 불리지 않았다고 해도 전부 밀지도 않고 전부 기르지도 않아 둥그렇게 둘레를 밀고 한 움큼 남겨두고 그것으로 벼풀썩처럼 뽕쪽하게 땀은 머리모양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전혀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을 것임이 틀림없다.<sup>14)</sup>

루쉰이 보기에 변발은 싸움, 처벌, 곡예, 체포 등에 편리한 머리 모양일 뿐이다. 특히 경찰들이 여러 명을 한꺼번에 끌고 가기에 맞춤 맞은, 중국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효과적인 처벌 장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변발에 대한 루쉰의 이와 같은 묘사는 19세기초 이래 서양인들이 “중국의 형벌과 사법절차는 일반적으로 ‘동양적’ 전제주의의 결과라고 여겨졌으며, 잔혹성이 팽배한 사회의 ‘퇴보적’이고 ‘반(半)야만적’인 본성을 드러낸다고 보았”<sup>15)</sup>던 것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루쉰은 잡문 <병든 뒤의 잡담(病後雜談)>에서 張獻忠의 잔혹한 행위, ‘대벽’, ‘궁형’, ‘부형’, ‘유폐’, ‘가족 벗기기’ ‘능지처참’ 등 수많은 형벌을 가진 중국의 전통에 대한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고 있다.<sup>16)</sup> 심지어 “중국은 너무 이상하다. 중국 고유

14) <因太炎先生而想起的二三事>, 같은 책, 577쪽.

15) 티모시 브룩 외 지음, 박소현 옮김, 《능지처참》(너머북스, 2010), 360쪽.

16) <病後雜談>에는 잔혹한 형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張獻忠의 만행을 기록한 《蜀璧》에 대한 루쉰의 인용을 옮겨보기로 한다. “또 가족을 벗기는 자는 머리부터 궁둥이까지 죽 쪼개고 새가 날개를 퍼듯이 앞가슴을 벗겨 하루

의 의서에 나오는 인체오장도는 그야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조잡하고 착오가 많은데, 혹형의 방법에 대해서는 종종 고인들이 벌써부터 현대의 과학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sup>17)</sup>라고 하기까지 했다. 원래 서구문학에서는 18세기까지만 해도 중국 형벌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강조했으나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로써 차츰 중국의 형벌에 야만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한다.<sup>18)</sup>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루쉰의 변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제국주의의 확산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축된 19세기 서양인들의 시선이 루쉰에게 내면화되어 있었다고 할 법하다. 이를테면 루쉰의 글쓰기는 이른바 문명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제국주의의 식민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한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인용문에서 루쉰은 “서양인들로부터 ‘돼지꼬리’로 불리지 않았다고 해도” 중국인 스스로가 변발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전혀 필요하지도 않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발의 무용성에 대한 자각은 루쉰이 말했듯이 ‘쇄국해제’가 되고 서양서적을 읽고 ‘비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래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변발 모양이 루쉰에게 야만적으로 간주되는 이유가 보다 분명해진다.

편벽한 고장에서 살 때는 그러저럭 괜찮았지만 상하이로 오자마자 pig-tail, 돼지꼬리라는 서양말을 가끔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이 말을 들을 수 없게 된 지 오래되었다. 이 말의 뜻은 아마도 사람의 머리에 돼지꼬리가 자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 그런데 당시의 청년들은 요즘 사람들처럼 깊지 않고 또한 ‘유머’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그야말로 귀에 거슬렀다. 뿐만 아니라 2백 여 년의 역사를 가진 변발의 모양에 대해서도 점점 고상하지 않다고 느껴지게 되었다. …… 그것에 대하여 끝내 악감을 품게 되었는데, 내가 보기에 [이런 감정은-인용자] 바

를 넘기면 죽기 시작했다. 만일 바로 죽게 하면 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魯迅全集》 6, 170쪽.

17) <病後雜談>, 같은 책, 170-171쪽.

18) 티모시 브룩 외 지음, 박소현 옮김, 같은 책, 314-321쪽 참고.

로 인지상정으로 어떤 지방의 무언가를 가져와서 무슨 스키의 이론에 미혹된 것이라고 지적할 필요는 없다. (강조점을 찍은 구절은 관방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상할 것도 없다’라고 고쳤다.)<sup>19)</sup>

루쉰은 조계지 상하이에 와서 처음으로 pig-tail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이글을 쓰고 있던 1935년에는 이제 변발을 한 사람도 몇 명 없거니와 따라서 pig-tail 이라는 말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쉰은 굳이 자신이 처음 상하이에 왔을 때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에 느꼈던 ‘거슬림’과 ‘악감’을 언급하고 있다. 루쉰은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지방의 무언가를 가져와서 무슨 스키의 이론에 미혹되”어서가 아니라 ‘인지상정(人情之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2백 여년 동안 해운 머리모양이 별안간에 “고상하지 않다고 느껴”진 데는 분명 루쉰의 비판자들이 말하고 있는 ‘스키’로 대변되는 러시아, 혹은 서양인의 “이론에 미혹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루쉰은 변발을 통해서 ‘滿漢의 경계’를 알았다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滿漢이라기보다는 ‘중서의 경계’를 보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내면에는 분명히 서양인의 시선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쉰은 명백하게 타자의 시선을 통하여 중국인의 신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1860년대 영국의 한 유머잡지에 실린 “가느다란 눈에 긴 변발 / 먹을거리는 쥐, 개, 민달팽이, 달팽이 / 무엇이든 프라이팬에 튀겨먹는 / 불결한 잡식성의 중국인 / 조잡한 차를 노래하라, 나의 교활한 중국인 / 투지도 없는 나의 비겁한 중국인 / 영국인은 가망이 있으니, 한 번 시도해보라 / 조금이라도 중국인이 정신을 차리도록”<sup>20)</sup>이라는 시가 묘사하고 있는 당시 서양인들이 보편적으로 품고 있던 중국인에 경멸감이 내재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변발에 대한 루쉰의 ‘악감’은 중국인의 신체 전반에 대한 경멸로 이어져

19) <病後雜談之餘>, 같은 책, 193쪽.

20) 조너선 스펜스 지음, 김우영 옮김, 《근대중국의 서양인 고문들》(이산, 2009), 104-105쪽.

그의 소설 곳곳에서 드러난다. 정신적 승리법의 대가인 阿Q마저도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근심 거리가 있다.

阿Q는 ‘예전에는 호화롭게 지냈고’ 식견도 높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일을 잘 하’므로 원래 거의 ‘완벽한 인물’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는 체질적으로 약간의 결함도 있었다. 제일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그의 두피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땀통자국이 몇 개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그의 몸에 난 것이기는 하지만 阿Q의 생각에도 귀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땀’이나 ‘때’에 가까운 발음도 말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점점 확대되어 ‘빛’도 꺼리고 ‘밝다’고 꺼리고, 다시 또 이어서 ‘등불’, ‘촛불’도 모두 꺼렸다.<sup>21)</sup>

阿Q는 스스로가 완전무결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인간이지만, 두피에 생긴 ‘땀통자국’만은 어찌지 못하고 비슷한 발음도 하지 않고 땀통으로 반질거리는 머리를 연상케 하는 단어들을 터부시한다.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땀통자국”은 정신적으로도 끝내 승리하지 못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중국인의 신체적인 결함이었던 것이다.

중국인의 불결한 신체에 대한 작가 루쉰의 시선은 단편소설 <비누>에서 쓰밍(四銘)의 시선으로 형상화된다. 쓰밍은 ‘효녀 거지’를 보고 비누로 깨끗하게 씻긴 후의 여성의 몸을 상상하는 청년들에 대해 “이게 말이 돼?”<sup>22)</sup>라고 하며 비난했지만, 예민한 부인은 청년들과 하등의 다를 바 없는 ‘효녀 거지’를 향한 쓰밍의 관능적인 욕망을 눈치 챘다는 속내를 비추고는 “당신네 남자들이란 ..... 정말 꼴불견이야”<sup>23)</sup>라고 대응한다. 소설 <비누>는 여전히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는 당시의 이른바 ‘문인’들에 대한 풍자이다. 그런데 중국인의 신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아내가

21) <阿Q正傳>, 《魯迅全集》 1, 516쪽.

22) <肥皂>, 《魯迅全集》 2, 50쪽.

23) <肥皂>, 같은 책, 52쪽.

새로 사온 비누를 건네는 남편 쓰밍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녀는 …… [남편의-인용자] 눈빛이 그녀의 목덜미를 쏘아보는 것을 보고는 광대뼈 아래의 얼굴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끔 자신의 목덜미를 만져보면, 특히 늘 귀 뒤가 거칠다는 게 손가락으로 느껴지곤 했다. 벌써부터 오랫동안 목은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태까지 결코 그리 개의치 않았다.<sup>24)</sup>

쓰밍은 새로 산 비누를 건네며 아내의 해묵은 때로 절어있는 “목덜미를 쏘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쓰밍이 비누를 산 속내는 자신의 관능적인 욕망을 청결한 아내를 통해 실현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머리카락을 자른 여학생들이야”<sup>25)</sup>라며 단발, 특히 여성의 단발에 적대심을 드러내는 쓰밍에게도 불결한 아내를 청결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쥐엄나무 열매’가 아니라 “초록색의 독특한 향기가 나는 서양비누”<sup>26)</sup>이다. 물론 쓰밍의 시선을 작가 루쉰의 시선으로 곧장 등치시킬 수는 없다. 작가 루쉰은 분명 쓰밍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누>는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야만적인 중국인의 신체에 대한 작가 자신을 포함한 당시 지식인의 시선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중국인의 신체를 야만적인 것, 비위생적인 것, 문명적이지 못한 것, 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관점은 루쉰보다 앞선 세대인 Kang Youwei에게서도 잘 드러난다. 그의 《大同書》에서 보이는 畝種의 기획은 다른 아닌 상대적으로 열등한 종족인 중국인 등의 황색인종을 결혼, 거주지 이전, 식생활의 변화 등을 통하여 백인종으로 만들기 위한 욕망에서 만들어진 것이다.<sup>27)</sup>

24) <肥皂>, 같은 책, 46쪽.

25) <肥皂>, 같은 책, 48쪽.

26) <肥皂>, 같은 책, 46쪽.

27) Kang Youwei의 ‘畝種 기획’에 대해서는 줄고 <중국문화의 근대성과 우생학-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중심으로>(《중국현대문학》 47)를 참고할 수 있다.

다시 변발 문제로 돌아가 보자. 루쉰은 장타이옌의 <변발을 풀다(解辮髮)>에 나오는 “내 나이 이미 而立임에도 아직도 오랑캐의 복식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소한 것도 거스르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 나는 본래 吳越의 백성이므로 그것을 제거하여 고대의 도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sup>28)</sup>를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변발을 자른 것은 내가 越 땅 사람이고, 越 땅에서는 옛날에 ‘단발하고 문신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특히 모방하여 선현들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조금도 혁명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은 그저 불편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모자를 벗을 때 불편했고 둘째로 체조에 불편했고 셋째로 정수리에 감아올리는 것이 너무 답답해보였기 때문이다.<sup>29)</sup>

루쉰은 변발을 자른 것이 자신이 越 땅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혁명적 동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장타이옌과 달리 吳越 땅 출신이라거나 혹은 혁명을 위해서라고 하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변발을 자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어쩌면 루쉰은 이 글을 통하여 변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장타이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말을 따르자면 변발 자르기는 민족주의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중국인의 신체가 모자를 쓰고 체조를 하는 데 ‘불편’하고 답답해 보인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루쉰에게 있어 변발 자르기는 모자를 쓰거나 체조를 하는 데 편리하고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따름이었다. 요컨대 변발은 민족주의적 반감을 일으키는 대상이었다기보다는 근대적인 삶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신체를 상징하는 것이었던 셈이다.

28) <因太炎先生而想起的二三事>, 579쪽에서 재인용.

29) <因太炎先生而想起的二三事>, 579쪽.

### Ⅲ. 루쉰의 페르소나 - ‘가짜양놈’과 ‘N 선생’

변발에 대한 루쉰의 글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대적 삶에 적합하지 않는 ‘불편’함,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런 신체로 묘사되는 것 이외에 ‘피의 역사’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형씨, 자네는 머리카락이 우리 중국인의 보배이자 원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 고급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 때문에 조금도 가치 없는 고통을 맛보았는가 말일세.<sup>30)</sup>

이상은 <머리카락 이야기>에 나오는 ‘N 선생’의 말이다. 여기에서 ‘N 선생’이 문제적인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은 루쉰이 여러 산문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불편하고 수치스런 머리모양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한 머리모양에 대한 ‘고집’이 빚어낸 비극적인 역사이다. 바로 이 고집 때문에 명말청초는 말할 것도 없고 洪秀全의 태평천국 시기에도 “조금도 가치 없는 고통을 맛보았”던 것이다. 앞서는 변발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이고, 나중에는 머리를 전부 다 기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루쉰이 죽기 직전까지도 내려놓지 못했던 변발에 대한 혐오는 만주족으로부터 강요되고 서양인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된 머리 모양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알게 모르게 하나의 ‘관습’이 되고, ‘관습’이 된 결과 그것을 천고불변의 신체로 간주하는 ‘비자율적인 신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질문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한다.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의 고분학원에 입학할 당시 루쉰은 다른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변발을 하고 다니다가 1903년 초에 변발을 자른다. 21살의 루쉰은 단발하고 학생복을 입고 찍은 사진 한 장을 가족에게 부치고 다른

30) <頭髮的故事>, 《魯迅全集》 1, 485쪽.

한 장의 뒷면에는 아래의 시를 써서 지우 쉬서우상(許壽裳)에게 부쳤다.

큐피드의 화살을 피할 염이 없는데 / 몰아치는 비바람에 고국의 땅은  
어둑어둑 / 차가운 별에 부친 이 마음 아무도 몰라줘도 / 나는 나의 피를  
軒轅에게 바치리라<sup>31)</sup>

이국땅의 밤하늘 아래에서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떠올리며 그 누가 몰라주더라도 軒轅으로 대표되는 한족문화의 부흥을 위해 자신의 ‘피’를 기꺼이 내놓겠다고 하는 강개어린 선언이다. 간절히 기도하며 희생을 각오하는 두려움 없는 청년의 결기가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루쉰과 저우쥘런을 한 데 묶여 평전을 쓴 쑤위(孫郁)는 “개인과 민족, 인생과 사회에 대한 생각이 침중하면서도 비애로운 데다 생명을 바쳐 자신과 조국을 구해내려 하는 사랑이 그 행간에 흘러넘치고 있다. 과거에 지어진 영사시(詠史詩)나 애국시 가운데서도 이 같은 광대한 기상에 도달한 작품은 매우 드물다”라고 극찬을 하며 “루쉰 자신의 초상화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해외를 유랑하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토로한 내심의 독백이라고 할 수 있다”<sup>32)</sup>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만청에서五四시기까지 문인들의 변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19세기말 20세기초 청나라 조정은 변발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그다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팡타오(彭濤)의 연구에 따르면 1903년 《大公報》에서 단발과 복식의 개조에 관한 토론을 주관했을 때 이미 찬성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하며,<sup>33)</sup> 위민메이(于閩梅)의 연구에서도 청말 단발은 심지어 청 조정에서도 개명과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sup>34)</sup> 물론 Kang유웨이(康有為)가 변법 시기 황제의 단발과 복식의 개조를 건의한 이래 청 정부

31) <自題小像>, 《魯迅全集》 7, 447쪽.

32) 쑤위 지음, 김영문·이시환 옮김, 《루쉰과 저우쥘런》(소명출판, 2005), 71쪽.

33) 팡타오, 같은 글, 190쪽.

34) 于閩梅, <一九二七: 王國維的辮子, 身體與政治>, 《文藝理論與批評》(2003.1), 55쪽.

의 단발에 대한 저항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sup>35)</sup>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단발의 문제가 적어도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더욱이 1912년 3월 15일 쑨중산이 ‘단발령’을 내린 이후로는 “단발 행위 그 자체에 더 이상 정치적 급진성을 띄지 않게 되었다.”<sup>36)</sup> 심지어는 루쉰의 소설 <풍파>에서 그려지고 있듯이 농촌에 살고 있는 치진(七斤)마저도 치진 닥의 말을 빌리면 “造反이 일어났을 때 그[치진-인용자]는 기어이 죽어도 성에 굴러들어가겠다고 하더니 성에 들어가서는 변발이 잘랐다”<sup>37)</sup>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신해혁명 시기에는 이미 궁벽한 시골의 농민들 가운데서도 변발을 자른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루쉰의 단발은 물론 신해혁명 훨씬 전인 1903년으로 다소 이른 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발 자르기에 대해 《大公報》와 같은 신문잡지에서 공공연하게 공론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나의 피’를 바치겠다고 운운하는 루쉰의 선언은 혈기 넘치는 청년의 다소 과장된 ‘각오’로 보기에 지나친 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소설과 신문을 통하여 변발이 없다는 이유로 모욕을 받았다고 형상화하거나 고백하는 루쉰의 태도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루쉰이 단발할 즈음 단발에 대한 논의가 언론 매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유학생을 중심으로 지식인들 중 상당수가 변발 잘랐다고 하더라도 저장(浙江)의 작은 도시 샤오싱(紹興)에서 여전히 단발은 낯선 모습이었다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막내 동생 저우젠런(周建人)은 변발 없

35) 1907년 5월 6일 學部의 상소를 거쳐 청 조정은 학생과 군인의 단발을 엄금하여 산둥(山東)에서는 “외국 유학생을 제외하고 변발을 자르고 양복을 입는 자는 어떤 학당의 학생이든지 간에 일률적으로 징계한다”라는 고시문을 내기도 했으나 1908년 慈禧가 사망하자 청 조정 내부에서는 다시 단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閔杰, 같은 책, 610-611쪽 참고.

36) 彭濤, 같은 글, 191쪽.

37) <風波>, 《魯迅全集》 1, 495쪽.

이 귀국한 루쉰의 모습을 보고 외국인이라고 생각했으며 친지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눈빛으로 신기한 동물을 보듯 그의 두발을 구경했다”<sup>38)</sup>라고 회상했고, 루쉰은 “생각건대 코가 없는 사람이 길을 걸어도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sup>39)</sup>라고 기억했다. 루쉰은 자신이 변발을 자르고서 겪은 ‘사회적 처벌’을 <阿Q正傳>의 ‘가짜양놈’과 <머리카락 이야기>의 ‘N 선생’의 입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 ‘가짜양놈’과 ‘N 선생’은 작가 루쉰이 자신을 등장인물에 투사한 또 하나의 인격 즉, 페르소나(persona)인 셈이다.

그런데 ‘N 선생’과 ‘가짜양놈’이 소설 속에서 형상화되고 <병 든 뒤 잡담을 하고 나서(病後雜談之餘)> 등과 같은 산문에서 자신의 단발로 인한 수난을 고백한 시점 사이에는 물경 15년의 침묵의 시간이 존재한다. 루쉰이 만년에 산문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작가와 소설의 등장인물 사이의 전기적 사실의 유사성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머리카락 이야기>에 대한 에바 산 초우의 연구는 루쉰이 죽음을 앞두고 “지연된 폭로”<sup>40)</sup>를 통해서 ‘가짜양놈’과 ‘N 선생’의 경험이 자신의 전기적 사실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논증한다. 그녀는 또한 루쉰의 “지연된 폭로”와 저우젠런의 기억이 각각 다른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루쉰은 1907년 일본 유학생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던 당시를 기억하고 있고, 저우젠런은 1903년 유학 중 일시 귀국하던 시점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기억에 모두 착오가 없다면 루쉰은 변발로 인한 재난을 두 번 되풀이 했던 셈이다.<sup>41)</sup>

여하튼 간에 루쉰의 소설 속에서 ‘가짜양놈’과 ‘N 선생’의 경험은 거의 동일하다. 다른 점이라면 바라보는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다. <阿Q正傳>에

38) 周建人 口述, 周擘 整理, 《魯迅故家的敗落》, 史建國的 <魯迅與“假洋鬼子”> (《書屋》, 2004.7), 65쪽에서 재인용.

39) <病後雜談之餘>, 같은 책, 194쪽.

40) Eva Shan Chou, A Story about Hair: a Curious Mirror of Lu Xun's Pre-republican Years, *Journal of Asia Studies*, Vol 66, No. 2, 2007, 429쪽.

41) Eva Shan Chou, 439쪽 참고.

서는 阿Q가 ‘가짜양놈’을 바라보고 있고, <머리카락 이야기>에서는 ‘N 선생’이 무수한 阿Q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먼저 阿Q가 ‘가짜양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멀리서 한 사람이 오고 있었다. 그의 적이 또 나타난 것이다. 이 사람 역시 阿Q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인데, 바로 첸(錢) 나리의 큰 아들이다. 그는 전에 성안에 가서 서양식 학당에 들어갔다가 무슨 영문인지 일본으로 건너갔다. 반년 뒤에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리도 곧았고, 변발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모친은 십여 차례 통곡을 하고 그의 아내도 세 번이나 우물에 뛰어들었다. …… [阿Q는-인용자] 약착같이 그를 ‘가짜양놈’이라고 칭했고 ‘외국과 내통하는 자’이라고 불렀고 그를 보기만 하면 반드시 마음 속으로 몰래 저주하고 욕했다.<sup>42)</sup>

일본에서 유학한 첸 나리의 큰 아들은 곧은 다리와 단발을 한 모습으로 고향에 나타났다. 등과 팔다리를 구부린 채 걸던 유유자적한 걸음걸이에서 등을 바로 세우고 팔다리를 똑바로 하는 곧은 걸음으로 걷고, 머리 모양을 변발에서 단발로 바꾸어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루쉰의 말을 인용하자면 ‘불편’함이 해소된 머리 모양에다 달라진 시공간 개념에 적절한 신체 즉, 다시 말하면 체육하기에 좋은 서양인의 신체로 변해서 돌아온 것이다.<sup>43)</sup> 이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효경》의 가르침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阿Q의 직관적이지만 예리한 눈은 서양인의 신체로 변했다고 해서 진짜 서양인이 되는 게 아님을 갈파하고, 그를 ‘가짜양놈’, ‘외국과 내통하는 자’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첸 나리의 큰 아들은 루쉰이 실제로 그렸던 것처럼 阿Q가 정말로 “심

42) <阿Q正傳>, 같은 책, 521-522쪽.

43) ‘곧은 걸음’은 서양식 신체 교육의 결과물이다. 첸 나리의 큰 아들이 ‘곧은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효도 히로미의 표현을 빌리면 일본에서 노동의 동작에서 기원하는 다리와 상반신을 같이 움직이는 걸음 방식인 ‘남바’가 사라지고 행진 가능한 신체로 변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효도 히로미 지음, 문경연·김주현 옮김, 《연기된 근대》(연극과 인간, 2007), 122-127쪽 참고.

히 혐오하고 원통해하”<sup>44)</sup>는 ‘가짜 변발’을 사용한다. 阿Q는 마주 오는 그를 보고 급기야 무심결에 “대머리, 노새”<sup>45)</sup>라고 내뱉고 마는데, 첸 나리의 큰 아들 또한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는다.

뜻밖에도 이 대머리는 니스 칠을 한 몽둥이 – 바로 阿Q가 말하는 喪杖 – 를 들고 큰 걸음으로 걸어왔다. 阿Q는 이 찰라 맞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근골을 움츠리고 어깨를 들어 올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퍽 하는 소리가 났고 자신의 머리를 정확하게 때린 것 같았다.<sup>46)</sup>

첸 나리의 큰 아들은 당시 유학생 출신의 지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양 신사들이 휴대하는 멋진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이른바 모던보이였던 것 같다. 그런데 阿Q에게는 부모를 잃은 상주가 효심을 드러내기 위해 들고 다니는 기껏해야 喪杖으로 보일 뿐더러, 급기야는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몽둥이’일 따름이다. 이 가짜양놈은 자오(趙) 秀才와 더불어 혁명당의 행세를 하며 혁명에 참가하려는 阿Q에게 ‘혁명금지’를 선언했던 인물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阿Q正傳>은 분명 이와 같은 가짜혁명가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변발을 둘러싼 루쉰의 행적과 가짜양놈의 이력이 아주 흡사하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가짜양놈은 루쉰이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가짜양놈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선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중들을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어쩔 수 없이 내리친 셈이다. 그런데 루쉰은 가짜양놈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阿Q와 같은 민중들에게 증오심을 품었던 자신의 내면을 은연중에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해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루쉰은 변발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행위에 깊이 감추어져 있었던 자신의 내면을 해부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작

44) <阿Q正傳>, 같은 책, 522쪽.

45) <阿Q正傳>, 같은 책, 522쪽.

46) <阿Q正傳>, 같은 책, 522쪽.

품을 쓰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작품 전체가 서사가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으로 구성되고 만, <阿Q 正傳>보다 1년 미리 창작된 <머리카락 이야기>이다. 'N 선생'은 <머리카락 이야기>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넘두리처럼 늘어놓는다. 몇몇 산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이 유학을 가자마자 “단지 불편해서” 변발을 잘랐다가 유학생들의 미움과 감독관의 장학금 취소와 송환의 협박을 들었고, 몇 년 후 귀국길에 가짜변발을 샀다. N 선생은 일본에서 단발을 한 가짜양놈이 귀국하고 했을 법한 행동과 생각, 그리고 阿Q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가짜변발을 샀다네. 당시의 시가로 2위안(元)이었고, 그걸 쓰고 집으로 돌아갔지. 나의 모친은 오히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얼굴을 보자마자 우선 이 변발부터 연구하더군. 가짜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냉소를 보내고 내가 참수죄를 지었다고 했다네.<sup>47)</sup>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가짜변발을 구입한 일은 루쉰의 산문에도 그대로 나온다. 다만 가격이 4위안인 점이 다를 뿐이다. 루쉰의 말에 따르면 당시 상하이에 있던 가짜변발 가게는 “가격 할인이 없었고 가게의 대단한 명성은 당시의 유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만든 것도 정말 교묘해서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다른 점을 찾아내기 아주 어려웠지만, 유학생이라는 것을 알면 유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허점이 탄로나고 말았다”<sup>48)</sup>라고 했다. 가짜변발이 결국 들통 나고 만 N 선생은 사람들의 냉소와 비난을 받게 되자 “차라리 가짜변발을 걷어치우고 양복을 입고 거리를 다니”<sup>49)</sup>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47) <頭髮的故事>, 같은 책, 486쪽.

48) <病後雜談之餘>, 같은 책, 194쪽.

49) <頭髮的故事>, 같은 책, 486쪽.

길을 걸으면, 걷은 내내 조롱과 욕설 소리가 들리고, 뒤에서 따라오며 '건방진 녀석!' '가짜양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네.<sup>50)</sup>

<阿Q正傳>에서의 서술과 <머리카락 이야기>에서의 서술은 다소 차이가 있다. 阿Q의 편에서 보자면 첸 나리의 아들이 가짜변발을 쓰고 다녔기 때문에 '가짜양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N 선생은 가짜 변발을 벗고 단발에 양복을 입은 '진짜' 모습을 하고 다녔음에도 여전히 모욕을 당한 것으로 서술된다. 다시 양복을 벗고 장삼을 입어보기도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N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阿Q들은 무조건적으로 전통적인 신체를 고수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심한 민중들인 것이다. 따라서 모욕을 참고만 있을 수 없었던 N 선생은 급기야 지팡이를 휴대하기로 한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자, 나의 손에는 비로소 지팡이를 들게 됐다네. 힘껏 몇 대 때려주고 나자 그들은 차츰 욕을 하지 않게 되었지. 다만 내가 사람들을 때리지 않았던 곳에 가면 마찬가지로 욕을 들었지만 말일세.<sup>51)</sup>

N 선생의 뉘두리로 유추해보건대 가짜양놈이 阿Q를 지팡이로 때린 것은 阿Q의 욕설에 대한 순간적인 반응이었다기보다는 몽둥이질을 걱정하고 지팡이를 휴대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N 선생은 심지어 유학시절 한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지팡이로 언어를 대신한 일본인 혼다(本多)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자신의 몽둥이질의 정당성을 항변한다.

나는 유학 시절 南洋과 중국을 돌아다닌 혼다박사의 일이 실린 것을 신문에서 보았다네. 혼다박사는 중국어와 말레이어를 몰랐지.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모르면서 어떻게 다녔습니까, 하고 물었지. 그는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네. 이게 그들의 말이고, 그들은 모두 잘 알아듣지! 나는 이로

50) <頭髮的故事>, 같은 책, 486쪽.

51) <頭髮的故事>, 같은 책, 486쪽.

인해 여러 날 기분이 상해있었지. 부지불식중에 나도 그렇게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었다는 거야.<sup>52)</sup>

그런데 <병든 뒤 잡담을 하고 나서> 등과 같은 산문에서는 몽둥이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산문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몽둥이질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작가 자신의 개인적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반면에 <阿Q正傳>과 <머리카락 이야기>와 같은 소설에서 가짜양놈과 ‘N 선생’의 몽둥이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루쉰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서사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에피소드를 창작하여 삽입했을 수도 있다. 소설과 산문 중 어느 것이 보다 루쉰의 개인적 전기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몽둥이질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루쉰이 변발을 고수하는 민중들에 대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있다.

이어서 N 선생은 루쉰은 시골중학의 학감이 되어 “단지 변발이 없다”<sup>53)</sup>는 이유로 동료들 사이에서 소외되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N 선생의 경험은 루쉰이 샤오싱중학의 학감이었을 때 “변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내가 겪은 재난은 고향에 있을 때가 제일 심했다”<sup>54)</sup>라고 한 고백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에바 산 초우는 1910년 항저우(杭州)의 저장(浙江)사범대학에서 찍은 교사들과의 단체사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루쉰은 “사회적인 지도자이고 거기에서 조화될 수 있었음”<sup>55)</sup>을 보여준다고 했다. 루쉰 역시 항저우에서는 “양복을 입어도 양놈으로 간주되는 정도에 그쳤다”<sup>56)</sup>라고 했다. <머리카락 이야기>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럭저럭 지냈던 항저우 시절을 거론하지 않고 샤오싱의 경험을 서사화한 까닭은 작가 루쉰이

52) <頭髮的故事>, 같은 책, 487쪽.

53) <頭髮的故事>, 같은 책, 487쪽.

54) <病後雜談之餘>, 같은 책, 194쪽.

55) Eva Shan Chou, 같은 글, 446쪽.

56) <病後雜談之餘>, 같은 책, 194쪽.

머리카락으로 인해 겪었던 모욕을 양각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N 선생이 시골중학에서 겪은 또 하나의 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학생들의 단발운동에 대한 N 선생의 대답이다.

그럴만한 게 못되네. 자네들은 아무래도 자르지 않는 게 상책이야. 좀 더 기다리게나.<sup>57)</sup>

N 선생은 변발이 없는 게 좋다고 하면서도 단발을 반대한다고 실미적 지근하게 대답한다. N 선생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변발 자르기를 감행하고 퇴학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머리카락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도 사실 여학생의 단발로 인한 퇴학사건 때문이었다.<sup>58)</sup> 단발을 했다는 이유로 민중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동료들로부터 소외되었던 N 선생이 학생들의 단발에 반대한 까닭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추론할 수 있다.

지금 자네들 같은 이상주의자들은 또 어디에선가 무슨 여성의 단발이네 하고 떠돌고 다니고 있고, 또 아무런 소득도 없이 고통만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겠지!<sup>59)</sup>

여성의 단발을 이야기하는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이 결국은 여성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로지 고통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독이빨도 없이 어찌서 일부러 이마에다 독사라는 두 글자를 써 붙이고”<sup>60)</sup> 다님으로써 민중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끝장나고 마는 결과를

57) <頭髮的故事>, 같은 책, 487쪽.

58) 1920년 쌍십절이 되기 며칠 전 쉬친원(許欽文)의 여동생 쉬친쭈(許欽蘇)가 베이징여사대 시험을 보았으나 단발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루쉰이 <머리카락 이야기>를 창작하게 되었다. 史志謹, <魯迅小說 <頭髮的故事>解讀>, 《人文雜誌》, 2004.5. 참고.

59) <頭髮的故事>, 같은 책, 487-488쪽.

60) <頭髮的故事>, 같은 책, 488쪽.

가져오는 선부른 혁명가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N 선생은 얼치기 혁명가들의 선전에 희생이 되는 민중들을 애달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N 선생의 이 같은 태도가 동시에 신체의 개조에만 몰두하는 혁명가들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여지는 없는 것인가 생각해볼 만하다. 다음은 단발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루쉰에 대하여 “언행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주었던”<sup>61)</sup> 것에 대한 소회이다.

‘언행일치’는 물론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요즘 이른바 문학가들 가운데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변발을 자르면 가치가 머리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쉬안팅커우(軒亭口)는 추진(秋瑾) 아가씨가 희생된 곳인데, 그들은 자주 거기에 가면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sup>62)</sup>

이상은 <머리카락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고 <병든 뒤 잡담을 하고 나서>에만 나오는 내용이며 강조점은 루쉰이 짚은 것이다. ‘언행일치’는 물론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꼭 그렇게 주장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인용문에 제시된 언행일치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루쉰전집》의 주석에 따르면 “유치하고 무지했던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30여 년 동안 사상과 언행이 일관되었다고 자신했다”<sup>63)</sup>라고 한 스저춘(施鰲存)을 겨냥한 말이다. 루쉰은 근대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변발 자르기를 주장할 경우 결국은 “가치가 머리에 집중되”어 혁명의 대의가 실현되기는커녕 또 다른 죽음의 역사가 반복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변발이나, 단발이나와 같은 ‘머리 모양’은 목숨을 바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루쉰이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서구적 문명에 맞춘 신

61) <病後雜談之餘>, 같은 책, 195쪽.

62) <病後雜談之餘>, 같은 책, 195쪽.

63) 《魯迅全集》 6, 202쪽 각주 33 참고.

체의 개조가 궁극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근대적 신체로의 개조에서 루쉰이 지향하고자 했던 것은 변발을 자른 ‘단발’이 아니라 변발을 자른 ‘자유’였을 것이다. 썩십질 25주년에 루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변발을 자른 자유”에 감사했다고 한 것은 ‘변발을 잘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를 [수 있는-인용자] 자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루쉰이 일본에서 귀국한 뒤 얼마간 가짜변발을 착용한 까닭도 쉽게 이해된다. 루쉰에게 있어서 머리모양 자체는 별대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루쉰의 복식 스타일을 보는 것은 흥미롭다. N 선생처럼 루쉰도 단발한 머리로 창산(長衫)을 즐겨 입었다. 근대초기 중국에는 머리모양의 변화와 더불어 복식의 변화도 당연히 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중산좌(中山裝)의 등장이다. 중산좌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신해혁명이후 쑨중산이 서양의 복식을 중국화해서 만들어 입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며, 1920년대 말 민국정부는 <民國服制條例>를 만들어 중산좌를 공식 예복의 하나로 확정하기도 한다.<sup>64)</sup> 중산좌의 등장은 중국 남성의 복식에 있어서 창산의 퇴조를 의미한다. 창산의 퇴조는 특히 5·4 운동 이후 문화 각 방면의 개혁이 일어남에 따라 동시에 등장한 이른바 ‘남자는 창산을 버리고 여자는 치마를 버리자’라는 복식 개조의 주장과 함께 가속화된다. 당시 차오징화(曹靖華)는 “창산을 입은 사람은 모두 부패한 분자들이다(조금 나은 사람들도 있으나 겨우 소수일 뿐이다). 정객, 관료가 아니면 사기꾼, 부자도련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창산이 불편하고 위생적이지 않고 돈이 많이 들고 아름답지도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sup>65)</sup>

청년 루쉰은 최초 단발 직후 양복을 입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64) 羅檢秋, 같은 책, 11-12쪽.

65) 5·4 운동이후 복식 개조에 관한 논의는 羅檢秋의 책, 460쪽을 참고했다. 차오징화 글의 제목은 <男子去長衫女子去裙>으로 《青年》 5(1920.4.4)에 실렸다. 마찬가지로 羅檢秋의 책, 같은 쪽에서 재인용했다.

중년 이후 사진에 찍힌 루쉰은 거의 대부분 창산을 입은 모습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남성 복식인 창산과 근대적 신체의 부조화에 대한 여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창산을 버리자’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루쉰이 창산을 즐겨 입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창산 역시 만주인들이 강요했던 복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단발과 排滿의 주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루쉰의 말은 단지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고백이었을 법하다. 뿐만 아니라 서구 근대적인 신체와 어울리지 않는 창산을 루쉰이 즐겨 입었다는 것은 중국인의 신체에 대한 그의 기획이 서구적 신체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루쉰은 신체의 개조가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 IV. 나오며

이상에서 변발과 변발 자르기에 관련된 루쉰의 소설과 산문들을 살펴보았다. 최초의 소설에서부터 죽기 직전에 쓴 산문에서 루쉰은 중국인의 머리모양과 그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하고 설명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루쉰의 변발자르기는 軒轅에게 바치는 ‘피’ 즉, 한족의 부흥을 위한 희생의 각오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排滿革命이라는 민족주의적 열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 보다는 서양인들의 눈에 보여진 ‘수치스런 신체’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루쉰이 서양인의 눈으로 자신을 포함한 중국인의 신체를 바라보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루쉰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가짜양놈과 N 선생의 가짜변발을 둘러싼 소동에 대한 묘사와 산문에 대한 읽기를 통하여 루쉰이 변발에 대해 그토록 ‘악감’을 가졌던 이유에 대해 다소 새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루쉰은 특정한 머리모양에 대한 선언적 실천 혹은 계몽이 또 다른 피의 역사를 반복하게 할 뿐임을

주장하고 있다. 루쉰이 변발을 부정했던 것은 머리모양을 선택할 자유를 성취하지 못한 상징으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루쉰의 지향점은 중국인의 신체를 서양적, 근대적 신체로 개조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중국인이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신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루쉰은 서양인의 눈으로, 타자화된 시선으로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았지만, 궁극적으로 서양인의 신체로의 개조가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열망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근대화 혹은 근대성의 환상에 깊이 빠져 있던 여타 문인들과 구분되는 지점이 아닐까 한다.

### <參考文獻>

- 孔昭琪, <魯迅筆下的“辮子”>, 《魯迅研究月刊》, 1996.6.
- 羅檢秋, 《近代中國社會文化變遷錄》 3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98.
- 魯迅, <頭髮的故事>, 《魯迅全集》 1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 魯迅, <阿Q正傳>, 《魯迅全集》 1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 魯迅, <風波>, 《魯迅全集》 1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 魯迅, <肥皂>, 《魯迅全集》 2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 魯迅, <病後雜談>, 《魯迅全集》 6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 魯迅, <病後雜談之餘>, 《魯迅全集》 6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 魯迅, <因太炎先生而想起的二三事>, 《魯迅全集》 6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 魯迅, <自題小像>, 《魯迅全集》 7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 閔杰, 《近代中國社會文化變遷錄》(제2권)(浙江人民出版社, 1998)
- 史建國, <魯迅與“假洋鬼子”>, 《書屋》, 2004.7.
- 史志謹, <魯迅小說 <頭髮的故事>解讀>, 《人文雜誌》, 2004.5.
- 于閔梅, <一九二七: 王國維的辮子, 身體與政治>, 《文藝理論與批評》, 2003.1.

- 彭濤, <滿清到“五四”一代學人的辮子與政治>, 《湖北社會科學》, 2005.12.
- 侯杰·姜海龍, <身體史研究芻議>, 《文史哲》, 2005.2.
- 김수연, <근대국가와 신체의 수사학>, 《중국현대문학》 30.
- 마크 C.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푸른역사), 2009.
- 이보경, <중국문화의 근대성과 우생학-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47.
-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김희교 옮김, 《현대중국을 찾아서1》(이산), 2006.
- 조너선 스펜스 지음, 김우영 옮김, 《현대중국의 서양인 고문들》(이산), 2009.
- 티모시 브룩 외 지음, 박소현 옮김, 《능지치참》(너머북스), 2010.
- 효도 히로미 지음, 문경연·김주현 옮김, 《연기된 근대》(연극과 인간), 2007.
- 쑨위 지음, 김영문·이시환 옮김, 《루쉰과 저우쭈어런》(소명출판), 2005.
- Eva Shan Chou, A Story about Hair: a Curious Mirror of Lu Xun's Pre-republican Years, *Journal of Asia Studies*, Vol 66, No. 2, 2007.

#### <中文提要>

魯迅在自己的許多寫作反復地解釋關於辮子和剪辮的問題。從他的最早文言短篇小說《懷舊》到自己去世前兩天寫的《因太炎先生而想起的二三事》，這都是描寫由辮子和剪辮而來發生的一些故事。而且他的短篇小說《頭髮的故事》，《阿Q正傳》和《風波》被稱為“辮髮三部曲”。就他寫的這一系列作品，我們可以想到他把辮子或剪辮當成一個評估中國人的文明程度的鍵盤。

衆多所知，中國近代文明是自覺地，有意識地從改造或毀滅這中國人身體的一部分—頭髮—而來開始。晚清民初，較早搶先剪辮的大多數是在日本的留學生，他們是爲了顯示對中國文明改造的強烈欲望而剪辮。對於當時接受

優生學, 進化論의文人來說, 辮子簡直是“羞辱的野蠻的身體”。我想他們剪辮的內心動因是兩個, 一個是批判由滿洲清政府被強迫的陋規, 另一個是從pig-tail這名目才被認識的他者化的視角。

然而, 通過關於幾本小說裏的人物—假洋鬼子, N先生—和幾篇散文裏魯迅自己的告白的分析, 我發見魯迅的剪辮還是跟其他文人有所不同的地方, 他的剪辮不只是從所謂“反滿”這民族主義的態度來決定的。不像以民族主義為最終極目標的早期章太炎, 魯迅說他自己的剪辮是因為它“不便”於體操等現代性的各種活動, 決不是為民族主義這偉大的歷史使命。魯迅想中國人的身體需要改造為適合於現代生活的身體。

在這裡, 我們要注意魯迅關於身體改造的態度。他不想把中國人的身體改造為符合於西方的現代標準的。在改造為現代性的身體這規劃上, 魯迅的追求不是剪辮后的西方髮式“短發”, 而是按照中國人自己決定來隨時隨地可以剪的“自由”, 也就是說自己能選自己的髮式的“自由”。這樣一來, 我們不難了解魯迅為什麼戴假辮子。對於魯迅來說, 髮式不是關鍵的。總之, 魯迅的志向在於身體的自由, 不是改造成西方的現代性的身體。

주제어 : 魯迅, 身體, 身體話語, 野蠻, 辮髮, 他者化, 自由, 辮髮三部曲, 假鬼子, N先生, 現代性

